
해 외 출 장 보 고 서

2008. 6. ~ 7.

영국(런던, 버밍엄), 독일(슈투트가르트, 에슬링엔)

프로그램연구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장보고서 No.

2008. 7.

출장자
서수정 연구위원 심경미 연구원

□ 목 차

I. 출장 개요	1
II. 주요 기관 방문 면담내용	2
1. CABE	2
2. Design for London	5
3. Birmingham City Council	8
4. Stuttgart시 도시계획국	13
III. 영국과 독일의 국토환경디자인 정책	16
1. 영국의 국토환경디자인 정책	16
2. 독일의 국토환경디자인 정책	24
IV. 주요 사례 답사지	29
1. Kings cross Regeneration Project	29
2. Peckham 도서관	30
3. Greenwich Millenium Village	31
4. Swiss Cottage	34
5. St Katharine Docks	36
6. More London Project	37
7. Birmingham's Jewellery Conservation Area	38
8. "Stuttgart 21" Project 역전개발지역	39
9. 에슬링엔시 역전거리 가로 개선사업	40
V. 구득 자료 목록	41

I. 출장 개요

1. 출장 개요

- 출 장 자 : 프로그램 연구실 서수정 연구위원, 심정미 연구원
- 출 장 지 : 런던, 버밍엄, 슈투트가르트, 에슬링엔 등
- 출장기간 : 2008. 6. 28. - 2008. 7. 7. (9박10일)

2. 출장 목적

- 영국과 독일의 도시·건축 디자인과 관련한 계획체계 및 정책,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고 관련한 주요 프로젝트 사례지를 살펴보고자 함
- 국가와 지역 차원의 디자인가이드라인의 내용 및 성격, 운영 실태 등을 살펴보고 관련 사례지를 살펴보고자 함
- 이를 통해 도시·건축 디자인과 관련한 국내 계획체계의 정립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및 국가 건축디자인가이드라인의 방향설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3. 출장일정 및 업무수행 내용

- 영국 CABB, Design for London, Birmingham City Council 기관방문 및 관련 실무자 면담, 관련 주요 프로젝트 사례지 답사
- 독일 Stuttgart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과 기관방문 및 관련 실무자 면담, 관련 주요 프로젝트 사례지 답사, 독일 Esslingen시 답사

일자	활동지역	방문지 및 업무수행 내용
6.28.(토)	출발	
6.29.(일)	런던	Kings cross Regeneration Project, City Road Basin Project(Angel), Peckham 도서관 등 사례지 답사
6.30.(월)	런던	CABB 기관방문 및 담당자 면담, Greenwich Millenium Village 답사
7. 1.(화)	런던	Design for London 기관방문 및 담당자 면담 St Katharine Docks, More London Project(신시청사 일대) 사례지 답사
7. 2.(수)	버밍엄	Birmingham City Council 기관방문 및 담당자 면담 Jewellery Quarter Conservation Area 답사
7. 3.(목)	슈투트가르트	Stuttgart시 도시계획국 기관방문 및 담당자 면담 "Stuttgart 21" 전시관 및 사례지 답사
7. 4.(금)	에슬링엔	에슬링엔시 답사
7. 5.(토)	프라이부르크	리젠벨트 주거단지, 프라이부르크 구시가지 등 답사
7. 6.(일)	쾰른	Bahnhofstrasse 답사
7. 7.(월)	도착	

II. 주요 기관 방문 면담내용

1. CUBE방문 면담

일 시 : 6월 30일(월) 10:00~
면담장소 : 런던 CUBE
담 당 자 : Kath

1) CUBE의 조직에 관하여

□ CUBE의 Client

CUBE의 클라이언트는 기본적으로 Authority들이며, 공공영역을 담당하는 공공부분과 민간 개발업자, 사용자 등으로 궁극적으로는 디자인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

□ 커미셔너의 선임방법과 임용기간

- 커미셔너를 선임하고자 할 때 CUBE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공모개시를 하고 공모를 보고 직접 응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문이나 의견 조회를 통해 Executive chief가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측의 Secretary Minister가 최종 선임함
- 커미셔너의 자격은 environmental planning에 종사하였던 교수, 컨설턴트, 건축가 등으로 임기는 4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함

□ Executive team

- chief는 7명으로 각 분야별 운영전반에 관한 최고 결정기관임
- communication, resource(accountant 포함)는 건축관련 전문가가 아니며 나머지는 모두 건축 관련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임

□ Enablers : CUBE space Enablers

- Enablers는 다루는 분야로 구분한 것임
- Enablers는 학교, 주택 등 건축물에 관련된 자문위원이며 CUBE space enablers는 공공공간에 대한 부분을 다룸

□ Enablers : CUBE space Enablers의 역할

- 프로젝트 초기단계에 참여하여 디자인 프로세스와 디자인팀 선정, 좋은 디자인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셋팅해 주는 역할을 함
- 관련된 프로젝트와 유사한 우수선례를 지자체에 소개해 줌으로써 지자체 스스로 좋은 디자인이란 가격으로 결정할 수 없음을 인지하도록 함. 최저입찰에 의한 가격결정에 의존한 디자인의 한계를 지적해주기도 함

- ※ 공공부분에 대한 프로젝트는 초기에 enabling 과정을 통해 디자인절차와 방법론 등에 대해 컨설팅하고 실제 계획단계에서는 디자인 리뷰를 거침으로써 개발계획 전체에 걸쳐 CABE가 관여하며, 민간프로젝트의 경우 디자인리뷰에만 참여함

2) 디자인 리뷰에 관한 질문

□ 디자인 리뷰패널과 디자인리뷰 기준

- 디자인리뷰 패널은 전국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며 9개 Regional중 6개 regional에 지역 위원회를 두고 있음
- 디자인리뷰 패널은 기본 3년 임기에 잘 할 경우 2년 연임하도록 함
- 리뷰기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자료 참고
- DQI는 enabling과정에 참고하는 자료로서 디자인 전 과정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이를 체크하는 프로그램으로 디자인리뷰와는 별도로 운영
- 학교의 경우 Design Indicate를 별도로 작성, 이에 근거하여 디자인리뷰를 수행하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5명 내외로 구성되는 디자인리뷰 패널들 간의 합의형성과정을 통해 리뷰를 진행함
- 합의형성과정을 통해 디자인리뷰 결과를 결정함으로써 의견대립이 심각하지 않으며, 각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정리하여 자료에 공개하고 있음

□ 디자인리뷰의 성격과 역할

- 디자인리뷰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국가가 각 지자체에 디자인리뷰를 받도록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지자체는 개발행위허가과정에서 디자인리뷰를 의무적으로 받아 오도록 요청
- 디자인리뷰는 패널들간의 합의형성과정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지자체에게 제시하면, 지자체는 이를 참고하여 개발행위를 조정
- 디자인리뷰를 받은 프로젝트 중 70%정도만이 리뷰결과를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나머지 30%는 디자인 리뷰결과를 반영하지 않음

□ 디자인리뷰 수행 대상

- CABE에 신청한 모든 프로젝트가 디자인리뷰 대상이지만 CABE의 인원으로 충분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므로 몇 가지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리뷰
- 선정기준은 규모가 큰 프로젝트, 용도, 위치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리뷰 대상 프로젝트 선정
- 신청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역패널에게 리뷰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Regional office의 역할과 기능

- 임시직 2명 정도가 있으며, 별도의 branch처럼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서 디자인리뷰가 필요할 경우에 디자인리뷰를 수행하는 역할 담당

3) 디자인가이드라인에 관한 질문

□ By Design

- 지자체가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PPS1, PPS3, PPS12 등과 연계하여 운용되도록 작성함
- 국가에서 제시하는 디자인기준은 원칙적이고 방법론적이며, 프로세스 중심으로 정리, 제시할 수밖에 없음. 나머지는 이를 받아서 지자체의 역량과 특성에 맞게 작성함
- By Design과 관련한 디자인 기준도 관련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함
- 이는 지자체 디자인 정책을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도록 함
- 각종 디자인기준은 출간하여 지자체 담당자, 관련 개발업자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CUBE와 정부가 작성한 디자인기준과의 관계

- PPS, PPG는 법적 기준으로서 중앙정부 담당 공무원이 작성
- PPS1, PPS3, PPS12 등을 작성할 때 CUBE가 컨설팅과 조언을 담당

□ 지자체와 CUBE와의 관계

- Enabling과정을 통해 긴밀한 네트워크와 공조 체제를 유지
- 홍보와 교육, 지속되는 정보와 관련문서들을 작성, 제공해 줌으로써 지자체가 디자인정책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 디자인 정책 수행시 커뮤니티와의 관계

- 디자인프로세스에 커뮤니티 참여를 의무화 시키고 있음

4) 기타

- CUBE는 초기에 불과 몇 명으로 시작했는데 10년도 채 되기 전에 많은 변화과정을 거침
- 현재 CUBE관련 전문가는 CUBE space enablers인 전문가 100여명에 이르고 있음
- CUBE는 교육과 도큐먼트 제작 및 배포, 각종 컨퍼런스 등의 enabling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CUBE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음

2. Design for London 방문 면담

일 시 : 7월 1일(화)
면담장소 : 런던 Design for London
담 당 자 : Paul Harper(Public Spaces Project Manager)

1) Design for London

□ 업무 성격

- 32개 자치구(London borough)가 있는데 각 자치구의 planning combination을 관여하는 것은 아니며, 런던시의 TFL(런던 교통국)과 LDA(런던 개발국), GLA(런던 시청)¹⁾에서 하달된 내용의 일을 하고 있음
- LDF(Local Development framework)중 하나인 “London Plan”과 97년에 Richard Rogers가 만든 “Towards an Urban Renaissance”를 바탕으로 런던의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음

□ 업무 내용 및 역할

- Design for London은 큰 프로젝트보다 작은 프로젝트에 관여, 특히 camden, westminster 등 여러 자치구에 걸쳐있는 작은 프로젝트를 조정(organize)하는 일을 중점으로 하고 있음
- 프로젝트의 주체는 자치구에서 담당,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하지는 않음
- 자치구에서 프로젝트와 관련한 상황을 정기적으로 가져오면 ①Brief 방향 ②디자인 팀구성 ③Design에 대해 “consulting”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
- 이처럼 직접 개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적은 인원으로 많은 수의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함

□ Design for London이 중점을 두고 있는 5가지

- ① Design Quality 향상
 - ② Public Space : Compact city의 일환으로 수행, 공간의 질적 향상 및 연계(link)에 중점
 - ③ Council Area차원의 master plan에 대한 조언
 - ④ Best Practice Promotion : 건축도시 관련 전시, 건축 페스티벌에 참여 이벤트 개최 등
 - ⑤ Design Policy : Housing design Guidance 출판 등(가을에 출판예정)
- ⇒ Thames Gateway Project : 5개축의 corridor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수도 많아 추진 중인 프로젝트 가운데 main이라 할 수 있음

1) TFL(Transport for London, 런던 교통국), LDA(London Development Agency, 런던 개발국), GLA(Great London Authority, 런던시청)

□ 직원 및 Director 선임방법

- Director는 공개모집하여 TFL, LDA, GLA 세 기관에서 선정
- 세 기관의 사람들을 선별해서 Design for London의 직원이 됨

2) 100개 public space project

- 42 project in London : small park, square, park, corridor 등

□ 프로젝트 선정기준

- ① 전역에 고루 분포되도록 할 것
- ② London plan에 나오는 교통의 요지인 핵심지역들
- ③ 낙후되어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
- ④ Thames River regeneration지역과 같이 잠재력이 있는 지역

□ Focus된 지역의 개요

- Big Area Change : 템즈강변, 올림픽 관련 지역 등
- Riverside Space
- Town Centres : 60-70년대 조성된 유기적으로 형성된 작은 타운센터, Public space가 제대로 개발되지 못한 타운센터 등
- Green Infrastructure
- Corridors, Cynatories & Disfunctional Junction : 60-70년대 oneway 등 교통위주로 인해 보행공간이 안 좋은 지역

□ Completed public space project 예

- ① Gillett Square : 교통광장을 street furniture 없이 유동성있게 조성
- ② Action Town Square "The Mount" : 교통광장을 미니멀하고 심플하게 질 높은 공간으로 조성
- ③ Wembley Stadium Station Squire : 사람들의 많고 적음에 따라
- ④ Potters Fields Park : level을 다르게 조성, good design, 밀도 높은 건물 옆에 오픈스페이스 조성
- ⑤ Barking Town Square : 혼합용도, 유럽식 public space, 벽돌
- ⑥ Dagenham Healthway to the Thames : 고속도로와 템즈 gate 주변 project
- ⑦ Gallions to the Thames : Albert Dock Basin 재개발, Dockland rail way와 대학교 연

결 프로젝트

- ⑧ Trafalgar Square : 교통광장을 보행광장으로 조성, 노먼포스터
- ⑨ Parliament Square : 웨스터민스터 사원 앞 교통광장의 교통체계를 개편하고 일부를 광장으로 조성
- ⑩ Brixton Central Square
- ⑪ Albert Dock 등

3) CUBE와의 관계 및 가이드라인의 운영

□ CUBE와의 관계

- CUBE의 enabling중 런던 프로젝트는 Design for London이 enabling하도록 하고 있음
- 런던 프로젝트에 대해 CUBE에서 디자인리뷰할 때 Design for London이 참관함

□ Housing Guidance of Design for London과 CUBE GCL에서 만든 가이드라인과의 관계

- CUBE의 가이드라인은 여러 기관의 가이드를 모아서 종합한 것
- Design for London의 가이드는 기존의 가이드들의 GAP을 채우는 정도라 할 수 있음

□ CUBE의 가이드 활용 여부

- CUBE의 가이드는 Good Practice 가이드라고 생각함
- 실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으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음
- Design for London은 직접 가이드를 만들지는 않음

3. Birmingham City Council 방문 면담

일 시 : 7월 2일(수)
 면담장소 : 버밍엄 Design for London
 담 당 자 : Mark Gamble(Principal Planning Officer, City Center Development)
 Simon Delahunty-Forrest(Citywide Design Manager, City Design T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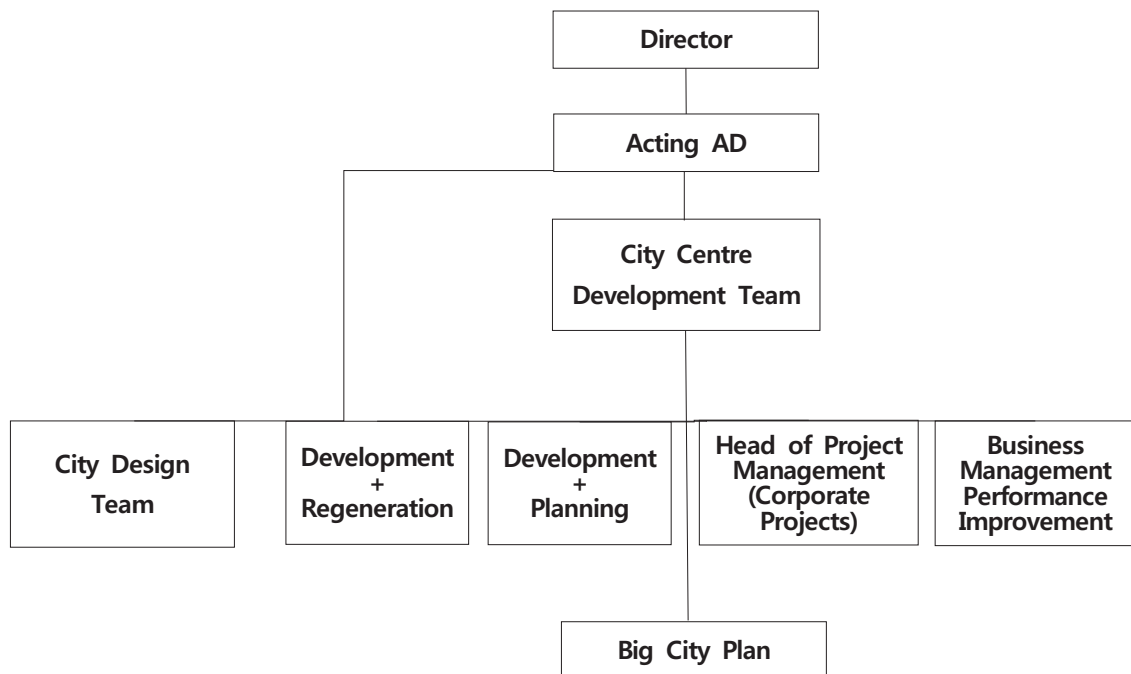
1) Birmingham City Centre Development Team + City Design Team 조직체계

□ City Design Team : 총 16명

- urban designer 8명, Landscape Architect 3명, Graphic Designer 5명

□ City Centre Development Team : 4개 부서로 구성(유인물 참고)

- Development + Regeneration
- Development +Planning
- Head of Project Management
- Business Management Performance Improvement



Birmingham City Centre Development Team + City Design Team 조직체계

2) Design Review Panel의 운영

□ 버밍엄시의 Design Review 운영

- 버밍엄은 자체적으로 별도의 Design Review Panel을 운영하고 있음
- City Design Team에서 담당. 대체로 2주에 한번 씩 정례적으로 진행
- 버밍엄시의 디자인 리뷰는 패널과 건축가(계획가)와의 피드백과정을 거쳐 진행하고 있음
- 디자인 관련 상담도 디자인 리뷰에서 하고 있음

□ 버밍엄 Design Review Panel 구성

- City Design Team과 전문가로 구성, 8~16명
- 일반적으로 (개발 planner)+(버밍엄 urban designer)+(교통관계자)가 참석하여 규모가 크거나 이슈가 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토론하고 평가함
- 외부에서 건축가나 디자이너가 참여하는 경우는 적고, 개발업자는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만 참석

□ CABE Design Review와의 관계

- CABE에서 운영하는 Design Review Panel은 버밍엄을 모델로 한 것임
- 일부는 CABE에서 디자인 리뷰를 하지만, 대부분은 버밍엄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 CABE의 Design Review는 법적권한이 없음
- CABE에 의뢰하거나 상의하는 일은 거의 없으나, 어려운 과제 또는 문제가 있는 것 일부에 대해 CABE와 상의하고 있음
- ※ MADE(Middle Architecture Design Environment)에서 디자인 리뷰 패널을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했으나 버밍엄시는 건축가나 프로젝트가 겹치기 때문에 이를 거절, 독립적으로 디자인 리뷰를 진행하고 있음

□ 계획안 Review 참여 단계

- 계획안 Review 참여 단계는 개발사례마다 다름. 개발자가 선정되면 Review를 신청함
- Design Review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시에서는 디자인리뷰패널과 함께 Design Review를 권장하고 있음
- City Design Team이 직접 계획안을 만드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이며, 일반적으로 직접 계획을 하지는 않음(City Design Team에서 디자인한 내용을 그대로 개발계획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지역에도 그대로 여과 없이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최근에는 직접 계획안을 작성하지 않고 디자인 컨설팅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 그러나 계획안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말로 하는 것보다 전달하기 쉬울 때 계획안작성(drawing)과정

을 거치기도 함

- 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많아 기획안이 들어오기 전에 개발주체(developer)들이 토지를 사야 함. City Design Team과 초기부터 상의하여 사용의도를 의논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 개발 초기부터 개발업자 몇 명이 기획안을 가져오면 그것을 보고 개발업자를 선정. 이런 점에서 리뷰패널은 마무리단계를 다룬다고 할 수 있음

3) Design Policy(2001)

- 지향적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수립배경 : 버밍엄시 중심부는 밀도가 높은 반면 Ring-Road주변은 개발이 저조하였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개발이 필요했으며 당시 엔지니어, 건축가, 디자이너, 정치가들이 모여서 개발에 대해 논의함. 이를 통해 Highbury Initiative가 생겼고 이를 바탕으로 Design Policy가 만들어짐
- LDF로서 기존의 Birmingham Plan을 개정하여 2008년에 수립된 BIG CITY PLAN의 바탕이 됨
- 문제제기 사례(appeal case) 발생 : 시에서 허가를 불허하였는데 이 Design Policy를 바탕으로 다르게 해석해서 불허에 대해 이의를 제기, 같은 사항을 다르게 해석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리뷰할 예정에 있음

4)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디자인 가이드

□ National Profile of Urban Design

: Places, streets & Movement, Compendium, By Design, Better Place to live

- Compendium을 제외한 세 가지를 주로 참고로 하고 있으며, By Design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
- Compendium은 기본단위 블록 사이즈 등 상세한 규정을 하고 있어 상의하거나 계획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하며 가이드를 만들 때 참고자료로 쓰기 어려움

□ Birmingham Urban Design Guides

: Places for living(2001. 3), Places for all(2001. 11), high places(2003. 3)

- 원래 있던 가이드에 세 가지 가이드가 추가된 것
- 이 세 가지 가이드는 Supplementary Planning Document로서 법적 영향력을 가짐
- CABE의 By Design이 더 후에 만들어졌으며 버밍엄의 가이드를 참고로 한 것임

□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가이드

- 국가지침인 PPS를 통해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음
- 국가에서는 지향하고자 하는 질(quality)만 정해주고 있음
- 버밍엄 도시계획국에서는 <street scale manual> 추진 중에 있음

□ 국가 건축디자인 가이드에 대한 생각

- 국가 디자인 가이드는 중심을 잡아주면서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해주고 있음
- Policy를 가능한 줄이고 Plan을 가져오면 진행이 더 빠를 것임

5) Birmingham Plan과 BIG CITY PLAN

□ 계획시스템 변화 중

- Birmingham Plan을 기본으로 세 가지 Guide를 참고로 해서 지역의 계획을 수립했으나 최근 Birmingham Plan을 2004년에 개정된 Design Policy System으로 전환중에 있음
- 현재 2008년에 Big City Plan이 수립되어 두 개의 Plan이 함께 쓰이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Birmingham Plan에서 Big City Plan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음
- BIG CITY PLAN은 Birmingham Plan과 같은 위상을 가지며 중앙정책(Unitary Guidance)으로 기본계획처럼 활용하려고 함
- 버밍엄의 세 가지 가이드와 함께 모두 법적 구속력을 가짐

□ 시스템변화 이유

- 새로운 PPS12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더 부여하고 간소화되었음
- 개발과정의 간소화를 위해 버밍엄시의 계획시스템을 변경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복잡해졌음

※ Jewellery Quarter Conservation Area Design Guide

- Supplementary Planning Documents등 계획안 수립을 위한 가이드
- 법적 구속력을 가짐

6) 기타

Q. 많은 가이드가 존재하는데 담당자, 계획가들이 이 모든 가이드를 숙지하고 있는가?

- 모르고 하기도 하고, 알고 계획하기도 함. 관련한 가이드만 주로 알고 있음

- 이에 따라 시에서 교육을 하고 있으며, 계획 그룹안에서 중요한 가이드를 알려주고 있음

Q. Community Design Center와 같이 주민들을 위한 디자인 조언이나 교육을 하는 비정부조직이 있는가?

- "Planning Aids"라는 시스템이 있으며 관련 부서가 있음
- 개발자가 있는 경우 시에서 주로 담당하고, 문제의 소지를 줄이고 디자인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개발자(developer)가 직접 주민들을 만나 진행하기도 함
- 저소득층 지역은 프로젝트 계획안을 학생들이 마련하고 교수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음

Q. 디자인 정책중 Canal Corridor Link Project가 있는데 중간에 민간업자가 개발할 경우, 어떻게 연결성이 유지되는가? private open space와 public open space 통합하는 과정은?

- Supplementary Planning Guidance가 있으니까 가능함. 이러한 점을 위해 가이드(Guidance)를 만들고 활용하는 것임
- 가이드를 바탕으로 보다 좀 더 자세한 계획을 세우고 가이드가 없을 경우에는 기획시 관련자 전체가 모여서 큰 방향을 정함

Q. 계획단계

- 정책 Strategy ↔ Management Guidance ↔ Planning management
- 가이드 작성팀은 별도로 존재함

Q. 계획안 과정 및 소요 시간

- 버밍엄은 사유지가 많아 개발예정부지에 대해 시에서 개발업자를 모집
- 관련 계획 및 가이드를 바탕으로 계획안을 받아 개발업자를 선정
- 계획안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진행, 검토 후 개발업자가 <Planning Application>을 등록
- 등록 후 최종 계획안 조정까지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8주에서 13주정도 소요됨

4. Stuttgart 방문 면담

일 시 : 7월 3일(목)

면담장소 : Stuttgart, Department of City Planning and Urban Renewal

담 당 자 : Dr.-ing. Detlef Kron (Director, Chief Officer)

1) Stuttgart 계획체계

□ F-plan(Flaechennutzungsplan, FNP) = Preparatory Land Use Plan

- Land use plan으로서 녹지(green)와 주거지역 등을 표시
- 10~15년마다 수립

□ Ramen plan = Urban Framework Plan

- F-plan과 Bebauungsplan사이의 공간계획
- 우리가 흔히 말하는 masterplan에 해당
- 변화가 예상되는 도시의 시 개발과 계획 목표를 보여줌

□ B-plan(Bebauungsplan) = Local Development Plan

- 라멘플랜에서 정한 것을 정확하게 표현, 여기서 결정
- 두 번까지는 주민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개인의 요구에 의해 변경되는 것은 불가능함
- 주민단체와 함께 결정하도록 feed-back 과정을 규칙으로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요 내용 : ①정해놓은 용도 ②건물의 높이/mass/volume/면적 ③교통체계
- Department of City Planning and Urban Renewal(도시계획 및 도시재생국)에서 자체적으로 수립
- Ramen plan을 수립할건지 B-plan을 수립할 것인지는 각 부서에서 결정함. 부서당 70명 정도 있음
- 계획수립 전에 몇 주 동안 분야별 전문가(교통, 운하, 문서연구자 등)와 토론을 거친 후 Bebauungsplan을 수립
- 시에서 필요한 사항을 바탕으로 공모전을 실시하여 당선된 현상안을 바탕으로 그 지역의 B-plan을 다시 수립하기도 함. 이러한 경우, 현상안은 B-plan에 일종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차원이라 할 수 있음
- 필지단위별 건축지정선 또는 건축한계선 등을 표시



stuttgart 공간계획체계 및 공간관련 법정계획

※ Bebauungsplan 및 주민참여 계획수립과정²⁾

계획에 대한 요구 → 계획안 작성에 대한 의회의 결정 → 초안 및 대안, 환경영향평가(EIA)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

→ 초기 주민 참여 (Early public participation) → 기본안 작성 → 관련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 (public bodies)의 참여 →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계획안 작성 → 지역 계획안 공개전시에 대한 의회 결정

→ LDF와 EIA 보고서 공개 열람(1개월) → 제안의 검토, 손해와 보상의 균형 검토 → 채택된 계획안에 대한 의회 결정 → 제안 검토 결과 공지 → 승인에 대한 공표로 법적 효력 발생

(밑줄친 부분 ; 주민참여 1, 2 단계)

□ Gestaltungsplan = Local Design Plan

- 세부 용도 표시, 녹지-주택 비율관계를 숫자로 표시, 건물높이, 녹지율 등 표시
- Gestaltungsplan안에서 한 건물단위로 세부화하면 건축가능선 안에서 건물 입구, 옥외 공간 등을 표시함

2) "Level of spatial planning in stuttgart", Department of City Planning and Urban Renewal, stuttgart

2) Stuttgart 21 - “The Railway Project”

- 기존 기차선로를 지상에서 지하로 변경, 선로가 있던 지상공간을 오픈 스페이스와 신개발지로 활용한 프로젝트로 많은 분야가 참여했으며, 독일 시와 주단위 관련부서가 참여한 거대 프로젝트
- 현상공모로 오토 프라이어가 당선, 지하공간을 버섯모양의 기둥으로 지탱하고 천장을 계획
- 프로젝트 주요 내용
 - ① 중앙역의 지하화, 상부 보행 park 조성
 - ② 선로가 바뀌면서 새로운 역 형성 : 유럽전역으로 연결되도록 선로를 변경하면서 새로운 역이 생기게 되었음
 - ③ 예전 선로부지의 활용 : 주거단지 조성 예정
- 계획안은 B-plan을 가지고 투자자를 모집, 결정하였음. (Ex. 이은영씨의 도서관 당선작)
- 현재 계획안을 수립한지 10년이 경과되었으나 현재 10년전 계획안으로 추진중에 있음

3) 기타

Q. B-plan을 시 전체를 수립하는 것인가?

- B-plan은 모든 지역에 수립되어 있음. 이것을 기준으로 모든 계획을 하며 법규화 되어 있음

Q. B-plan 이외 다른 가이드가 있는지?

- 별도의 다른 가이드는 없음. B-plan을 기준/바탕으로 모든 계획을 추진
- 그러나, 도서관 프로젝트의 경우 공모안에 따라 B-plan을 변경하기도 했음
- 이처럼 B-plan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과정을 거치게되는데 약 1년 정도 소요됨

※ 사례소개

- Maybachstrabe
- Zupenhauzen Museum

Ⅲ. 영국과 독일의 국토환경디자인 정책

1. 영국의 국토환경디자인 정책

□ 국토환경디자인 정책 방향

- 영국은 공식적으로 디자인정책이라는 개념을 도시기본계획체계 내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개발행위는 지방정부에서 책정한 디자인 정책에 따라 이루어짐. 이 과정에서 법적규제나 행정절차보다는 지역커뮤니티가 참여하는 위원회의 합의형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짐
- 이로 인해 국토환경디자인 관련한 모든 공간관리와 계획은 지방정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4년 이후 좋은 공간환경 디자인 추구를 목적으로 모든 도시계획과 개발행위과정에 지역 커뮤니티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수립절차를 개편하였음
- 도시기본계획은 지역의 공간특성과 잠재력, 공간관리수요에 대응하는 디자인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이며, 외형적인 공간의 가치보다는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건강하고 통합된 지역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디자인을 고려하는데 주목하고 있음

□ 도시계획수립 체계

- 도시계획은 2004년 9월 새롭게 개정된 계획체계에 따라 지역차원의 공간계획(Regional Spatial Strategy)과 지방단위의 도시기본계획이 통합된 지역단위의 도시기본계획(LDF; Local Development Framework)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디자인정책을 반영한 전략계획의 성격을 가짐
- LDF는 10년 이상 걸쳐 수립되던 기존 도시기본계획(통합개발계획: Unitary Development Plan)이 변화하는 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다원화되는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보장되지 못했다는 평가에 기인하고 있음
- 새롭게 개정된 도시기본계획인 LDF는 기존의 10년 단위로 수립하던 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개정하였음. 이로 인해 개발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기초지방정부차원에서 도시계획체계를 단일화함으로써 실제 개발행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함
- 이러한 LDF는 2004년 이전에 수립된 광역도시계획(Regional Spatial Strategy)과 기초지방정부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Unitary Development Plan)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차원의 공간 전략을 반영한 계획(plan)과 문서(documents)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적 가치판단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음
- 지역계획(Regional Space Strategy)에는 광역단위에서 고려해야 할 전략적 개발방향과 기초지자체간 협의에 의해 수립해야 할 기본계획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예; 주요 경관축이나 광역도로망과 연계된 주택정비사업 등의 방향 공유)
- 영국은 LDF 뿐 아니라 모든 개발행위와 관련된 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는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계획정책지침서(Planning Policy Guidance, Planning Policy Statement)³⁾와 지역정책지침(Regional Policy Guidance)⁴⁾을 준용해야 함. 이는 우리나라의 도시기본계획 수립기준이나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과 같은 역할을 담보하는 것으로 우리와 같이 모든 개별법에서 계획수립기준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계획정책지침이 모든 계획수립이나 개발행위를 위한 판단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음

- LDF를 작성하기 위한 지침인 PPS12는 도시기본계획이 과도하게 상세하거나 난해하게 작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이 기준에 따라 LDF는 비전(Vision), 전략(Strategy), 목적(Objectives), 실천계획(Policies)으로 구성됨
- 기타 PPG와 PPS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LDF를 수립하여 각 부문별 계획에 대한 실천 전략을 도출할 때 반영되도록 하고 있으며, 의사결정과정의 판단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예;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주택에 관한 사항은 PPG3에서 제시하는 사회통합을 위한 계층통합형 주택공급 계획을 내용에 반영함)
- PPG와 PPS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LDF에는 이를 지역차원에서 해석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PPG와 PPS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⁵⁾

PPG 및 PPS 구성내용

명칭	내용	명칭	내용	명칭	내용
PPS 1	지속가능한 발전	PPS 11	지역계획	PPG 18	개발 제한
PPG 2	그린벨트	PPS 12	지역도시기본계획	PPG 19	옥외 광고물 관리
PPS 3	주택	PPG 12	개발계획	PPG 20	해변 계획
PPG 4	산업, 상업 개발 및 소규모 상업	PPG 13	교통	PPS 22	재생 가능한 에너지 계획
PPG 5	간소화된 계획 조닝	PPG 14	불안정한 대지 개발	PPS 23	계획과 오염 관리
PPS 6	타운센터 계획	PPG 15	계획과 역사적 환경	PPG 24	계획과 소음 관리
PPS 7	교외의 지속가능한 발전	PPG 16	고고학과 계획	PPS 25	개발과 홍수의 위험
PPS 9	생물의 종 다양성과 토양 보전	PPG 17	외부공간, 여가공간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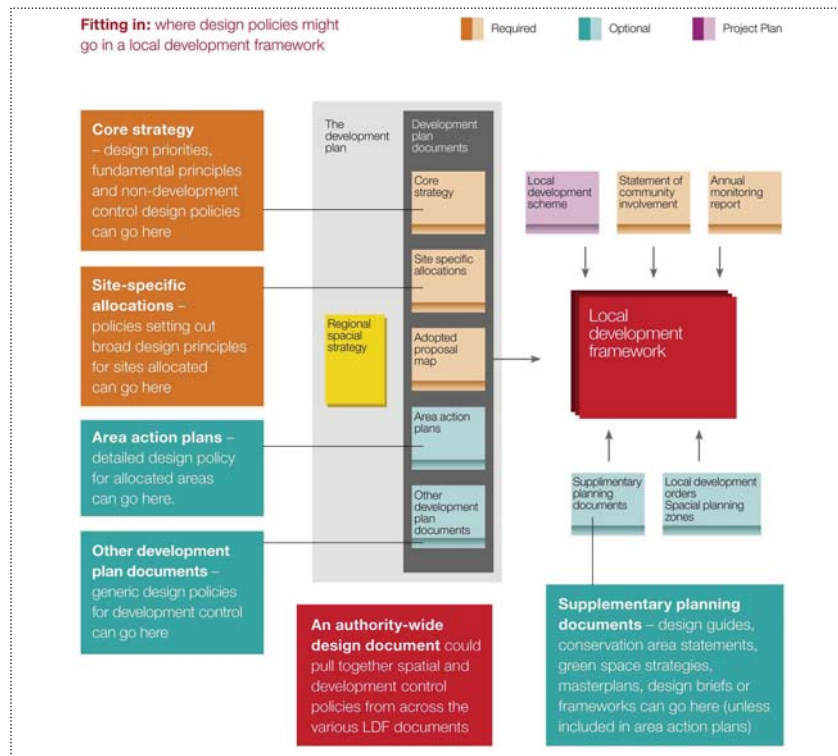
3) PPG시스템은 1999년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이 국가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채택됨에 따라 일부 정책지침들이 PPS시스템으로 대체됨에 따라, 현재는 정책항목에 따라 PPG와 PPS를 병행하여 운용하고 있음

4) RPG는 전국을 13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계획을 대신하여 개발과 보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감식의, 계획적 도시개발정비를 위한 도시마스터플랜 제도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7, p15~16

지역계획지침명	지역명	수립년도	지역계획지침명	지역명	수립년도
RPG1	North East	1989	RPG8	East Midland Region	1994
RPG2	West Yorkshire	1996	RPG9	South East	1994
RPG3	London	1996	RPG9A	Thames Gateway Planning Framework	1995
RPG4	Greater Manchester	1989	RPG10	South West	1994
RPG5	South Yorkshire	1989	RPG11	West Midland Region	1995
RPG6	East Anglia	1991	RPG12	Yorks and Humberside	1995
RPG7	Northern Region	1993	RPG13	North West	1996

5) LDF 작성시 PPG를 반영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일례로 "운하는 주요한 도시재생의 요인으로 작용. 운하에 면한 신개발은 그들의 위치와 용도가 운하의 기능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함. 모든 운하변의 개발은 버밍엄의 Canalside Development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부합해야 함. 이는 PPG15에서 제안된 사항을 따라야 함"과 같이 정하고 있음

- LDF에 담아야 할 내용은 중심전략, 전략적 개발부지 배분, 채택된 개발계획 맵, 커뮤니티 참여에 대한 사항, 연간 모니터링 리포트(Annual Monitoring Report)가 필수항목임



영국 도시기본계획 수립체계

- LDF의 계획수립과정은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어 커뮤니티 참여에 관한 내용을 담도록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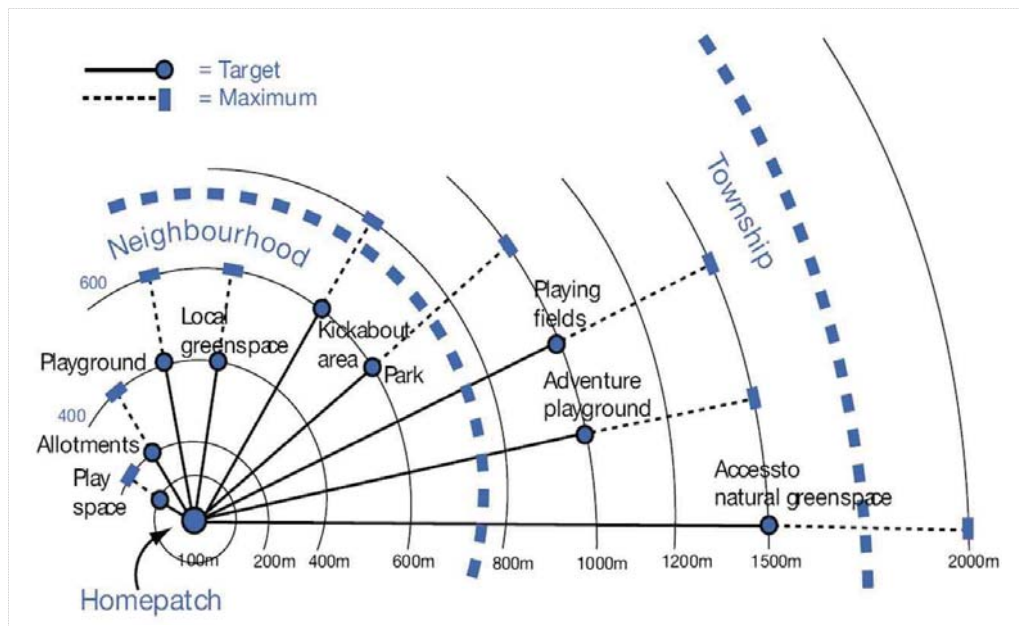


커뮤니티 참여에 의한 계획수립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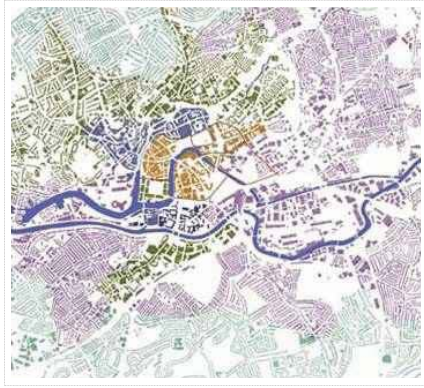
- 또한, 1년마다 한번씩 LDF에 포함된 계획내용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계획내용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하고 매년 모니터링 리포트를 작성하여 공개해야 하며, 이는 3년 단위로 수정되는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LDF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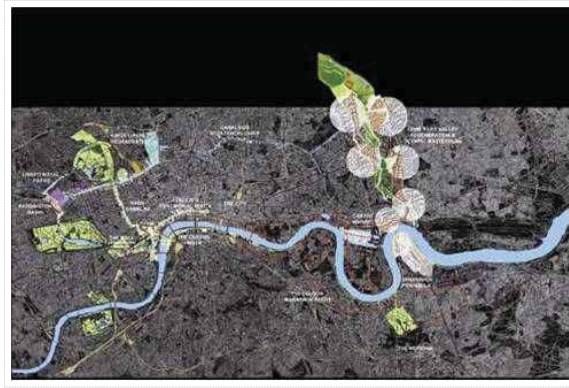
- LDF는 지역의 장·단기적인 공간계획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디자인정책으로써 5가지의 근본적인 기준에 의해 작성해야 함
 - LDF는 새로운 공간위계에 따른 디자인 정책과 커뮤니티 전략을 반영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과 고속도로, 주택, 경제개발과 환경관리에 대한 정확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야 함. 또한 수준 높은 공간환경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레벨의 도시디자인 전략을 제시해야 하며, 입체적인 공간계획을 통해 토지이용과 커뮤니티 시설간의 연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함
 - 주택정책이나 교통정책, 환경정책 등 지역의 공간관리와 연계된 모든 정책과 전략을 LDF와 연계시켜야 하며, 이를 고려하여 미래 개발여건을 예측하고 장소에 대한 가치를 개발주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면에 표현해야 함
 - 지역의 문맥과 특성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하며, 디자인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협력적인 공간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함
 - LDF의 목적은 지역의 다양성과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개별부지에 대한 계획보다는 다양한 레벨과 위계를 갖는 공간계획을 수립해야 함
 - LDF는 기능적, 입체적인 공간계획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는 사회·문화적으로 지속 가능한 디자인정책의 역할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함
- 이러한 LDF는 개괄적인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디자인정책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형식적인 도면이나 수치기준이 아닌 디자인정책을 텍스트로 기술하는 전략계획(Strategic Planning)으로 구성되어 있음
 - LDF는 계획의 목표를 정하고 바람직한 도시 미래상을 추상적으로 결정하는 우리나라의 도시기본계획과 달리 구체적인 시가지 변화에 대한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담고 있음



커뮤니티 전략에 의한 LDF의 토지이용도와 시설간의 관계 설정예시



브리스톨의 LDF 예시도: 역사적인 보존구역과 건축물을 도면에 표시함으로써 개발주체가 보존해야 할 곳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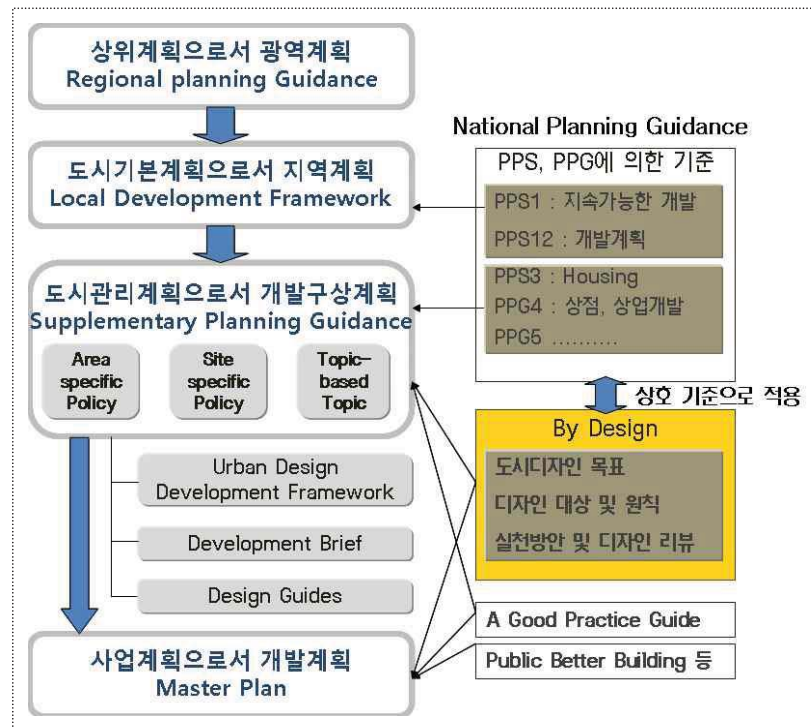


런던시의 LDF 예시도: 지역의 문맥과 특성에 따라 경계부분과 공공공간 연계방안에 대한 디자인 전략을 제시한 사례

- 도면에 의한 설명보다는 공공이 도시관리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행동지침만을 담고 있으며, 도시변화 관리프로그램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연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각 개발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방향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판단을 동반한 도시계획추진과정에 참고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침이 되도록 운영함

□ LDF의 실행수단

- LDF는 디자인정책의 일환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개발전략과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별도의 지침을 작성하여 LDF에 포함하고 있음
- 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도시설계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공간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수행되는 Supplementary Planning Guidance로 작성되고 있음
- 공간단위의 SPG는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By Design(Urban Design in the planning system : towards better practice)'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있음. SPG는 물리적인 공간환경 계획을 의미하며 경관계획과 지구단위계획, 공공디자인 등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 By Design은 그 자체가 경관계획수립 기준이나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과 같은 역할을 담보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디자인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992년 이후 국가 환경성이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계획수립매뉴얼(A Good Practice Guide; Safer Places the Planning System and Crime Prevention and Planning and Access for Disabled People)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음
- 이같이 LDF-SPG 체계로 운영되는 영국의 도시기본계획은 디자인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비법정계획인 가이드라인이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마스터플랜 수립에 반영되어 일관된 체계로 작동하고 있음



영국의 지방정부의 도시계획체계와 계획수립기준 적용방안

SPG의 구성내용

구분	Urban Design Development Framework	Development Brief	Design Guides
역할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도시 디자인을 이행하기 전의 큰 그림	특정 대상지의 명확한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상지의 디자인 원칙을 표현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	디자인 정책에 따라 특정 형식의 개발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할 것인가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
작성 방향	기본개념 스케치, 모델 그리고 기타 기법을 활용하여 디자인 컨셉 및 계획 제안을 2차원과 3차원 형태로 제시	개념도, 건축물 외관 가이드라인 (길이와 표시된 다이어그램), 그리고 건물형태와 공간을 3차원 스케치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침은 계획수립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적절히 디자인 할 것 -지침은 기술문건과 요약본으로 작성 -과도한 가격으로 보급이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생산물의 적절한 질을 명시 -지침을 보완하기 위한 대체물로서 워크시트와 체크리스트(세부 내용, 재료, 그리고 시공기간과 같은 내용을 담은) 작성
적용 대상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 또는 성장 및 변화가 필요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특한 정체성을 갖는 지역 -주택, 예술,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지역을 포함하는 다용도 	특정한 대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매립지: 높이, 접근로, 건축선, 및 사용 자재, 이웃과의 컨설팅 등 직설적인 지침으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용 디자인지침: 점포전면에 관한 지침 -거리미관과 경관디자인 매뉴얼:보행로 및 외부공간의 조명시설, 예술작품 설치 등

	특성을 지닌 도시 지역 -전면적인 도시 활성화를 위한 타운 및 시티센터 개발 지역 -새로운 주택과 산업 개발을 포함하는 타운 확장 지역 -영국 전원에서 후원하는 디자인 제안서가 통과된 지역 -도로, 철도, 수로 등 주요 교통의 결절지 -수변, 특별 경관지구 또는 보존 지구와 같은 특별 관리 지역	-대형주택 또는 재개발 대상지: 단계적 개발에 따라 레이아웃, 밀도, 매스 등 질서정연한 접근 -녹지대 대상지: 지세, 자연생태, 수역 및 경계 등 -대규모 대상지: 밀도, 접근성, 순환요건, 인접개발과의 연관성, 조상 등 -도시지역 내 소규모 대상지: 매스와 외관, 건축선 및 건물의 전용 등	-특정사용 목적에 따른 디자인 지침: 주거디자인 지침 등 -인접 지역, 지구 그리고 시 개발 지침: 2개 이상의 인접한 이웃 지역, 시 또는 타운의 전체 또는 일부에 관한 지침 (ex. 맨체스터 개발지침) -전원지역 디자인 요약: 지역적인 측면에 기반한 SPG -마을디자인 제안서: 타운커뮤니티 활성화 제안
발의 및 수립 권리	지역 당국, 토지소유자 또는 개발업자, 조합, 재개발업자 등에 발의 및 수립 가능	주로 지역당국이 수립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 의회의 자문을 구해 토지소유자, 개발업자, 재개발 조합, 커뮤니티 단체도 수립 가능	-주로 지역당국이 수립하나, 재개발에이전시와 그 협력체, 주택협회 등에서 수립 가능 -준비 시 지역커뮤니티, 이해 당사자 등이 참여하도록 함

- SPG는 지구레벨(Area Specific Policy), 사이트 레벨(Site Specific Policy), 특정레벨(Topic-based Policy)과 같이 대상규모와 성격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할 수 있음
- SPG는 3차원적인 공간개념에 따라 기본 개념스케치, 모델, 구체적인 설계지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상지 성격 및 SPG를 작성하는 목적에 따라 Urban Design Development Framework, Development Brief, Design Guides로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음
- SPG는 개발조정위원회(Development Control Committee)가 신규개발이나 도시재생과 관련한 개별 프로젝트의 개발행위를 허가하기 위한 법적 판단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 LDF의 실행방안

- LDF-SPG를 기본으로 하는 디자인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행위를 합리적으로 허가하기 위해 By Design에서는 몇 가지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실행방안으로는 사전신청제도와 포괄적인 위원회 운영, 디자인자문위원 운영, 도시기본계획을 포함한 개발계획에 제시된 디자인정책의 모니터링 및 리뷰제도, 건축도시지원네트워크를 위한 건축 및 개발센터(Architecture and Planning Centre) 연계방안 등 다양한 방식을 제안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운용하고 있음
- 이와 함께 By Design에는 디자인 품질과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디자인 샤알레에 의한 공동작업 수행, 지역커뮤니티 참여를 위한 다양한 협력설계방식 도입, 각 지자체에 공공건축가를 비롯한 디자인 전문인력을 채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디자인정책 실행방안

구분	역할	절차	내용
사업 승인 단계	사전신청제도 (Pre-Application)	사업 사전신청(인접 소유주 및 이해당사자와 협의) → 지역당국과 협의 → 조안을 통한 시정 후 → 계획수립신청	-정책배경 -도표로 표현된 주변현황 -타당성 검토자료 -디자인과 프로젝트 관리 방안 -디자인 원칙 -지역당국과 이해당사자간의 회의 프로그램 -주민참여 및 전문가 컨설팅 계획
	디자인 자문위원 운영	계획 수립 신청 시 디자인 정책, Development brief 및 design guide를 바탕으로 디자인 부분 평가	담당직원 위원회 검토보고서 제출(계획수립신청서, 모델, 조감도, 기본개념스케치 포함) → 자료 검토 → 디자인 관련 질의 회신 → 승인
사업 시행 후	모니터링 및 리뷰제도	사업시행 후 결과물을 대상으로 디자인정책 및 지침이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디자인 정책 검토 및 개정	-개발 제안서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 반영 리뷰 -개발 제안 지침 및 프로세스에 사용된 메커니즘 및 이들의 적용 방식과 성과 리뷰 -개발계획 내의 연관 정책 및 그 개발이 완공된 건물과의 일치 여부 리뷰
건축 및 개발 센터	건축 디자인 및 개발기준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홍보 및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조직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창구 역할	-건축디자인 및 개발기준에 대한 정보제공 -네트워크, 관련기술, 전문가를 위한 연결기관 역할 수행 -건축도시 디자인과 재개발지의 최적 실행절차 제안 -기존환경 교육과 건축 순회 프로그램 운영 -일반 대중들의 자문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	

디자인 품질향상을 위한 방안

구분	내용
디자인 샤알레 (Design Charrette)	특정 지역의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설계안을 집중적으로 검토, 디자인의 질 향상 도모
지역 커뮤니티 참여를 통한 협력설계방식	Urban Design Team(UDATs)
	Planning for Real
	Future Search and Open Space
전문 인력의 채용	계획수립 초기 단계부터 협의 등의 개발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디자인지침에 관한 전문 서비스 제공 및 디자인에 관한 조언

2. 독일의 국토환경디자인 정책

□ 독일의 지방행정체계

- 독일의 행정체계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연방(Bund),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주(Land)와 2만명 이상의 시(Kreisfreie Stadt) 또는 2만명 이하의 군(Kreis)으로 구성되며, 군 안에는 행정최소단위인 읍면(Gemeinde)이 있음
- 그 밖에 특별한 행정구역으로 베를린(Berlin), 브레멘(Bremen), 함부르크(Hamburg)와 같이 시인 동시에 주이기도 한 도시주(Stadtstaat)가 있음
- 독일은 역사적으로 지방분권이 발달되어 있으며, 지방정부의 자치행정권은 독일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Grundgesetz fue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에 의해 보장되어 있음
- 각 지역의 공간환경을 관리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며, 관련계획의 수립과 운용은 전통적인 행정단위이며 기초자치구인 시와 읍면에서 직접 담당함

□ 독일 공간환경 제도의 변화과정

- 전후 독일의 경제부흥은 많은 양의 주택과 도로망의 급속한 건설로 이어졌으나, 이와 더불어 국토전반에 걸친 균형있는 발전과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오랜 논의 끝에 1960년대에 이르러 독일은 공간환경 계획체계의 근간을 이룬 연방건설법(Bundesbaugesetz)을 제정함
- 연방건설법에 의해 토지이용계획과 지구상세계획으로 구성된 이원체계의 계획시스템이 갖추어졌으며, 국토전반의 공간환경을 관리하는 토대를 구축함
- 이후 연방건설법과 도시건설촉진법(Staedtebauforderungsgesetz)을 통합한 건설법전(Baugesetzbuch, 1986년 제정)이 제정되었으며,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건설법전은 1990년 통독이후에도 독일의 공간환경 관리체계의 기본 틀로서 독일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함
- 건설법전의 실행을 통해, 독일은 시와 읍면을 중심으로 한 국토 전반에 걸친 공간환경의 관리가 가능해졌으나, 광역권에 걸친 공간환경의 관리에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대처하기 위해 건설법전의 별책으로 건설법전-실행법이 수립되었으며, 각 주별로 수없이 많은 특별규정과 관련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1998년 건설및공간관리법(Bau- und Raumordnung)이 제정됨
- 유럽연방이 가동되고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면서 독일은 또 한 차례 전면적인 공간환경 관련법이 개정됨. 독일은 유럽연방법의준용에관한법(EAG Bau)과 환경평가규정(UVP-AendRL 1997)이 제정됨에 따라 2004년 건설법전, 공간관리법(전 건설및공간관리법), 환경평가법을 전면적으로 개정⁶⁾하고, 이로써 현재 독일의 주요한 공간환경 관련 관리체계가 새롭게 정립됨

6) Stueer (2007), BauGB und Fachplanungsgesetze, p. IX

□ 독일 공간환경 정책의 기본방향

- 연방건설법에 이어 건설법전에서도 토지이용계획과 지구상세계획으로 구성된 이원체계의 계획시스템은 유지되었으며, 기본적인 독일의 공간환경 관리체계에는 변화가 없었음. 이는 국토전반에 걸친 공간환경의 계획적 관리와 기초자치구의 개별적인 정책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기본원칙에 변화가 없음을 의미함
- 그러나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개정된 건설법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개발보다는 재개발, 특히 도시재생과 도시정비를 통한 도시계획, 자연생태계의 보호, 계획실행절차의 간소화, 유연한 계획을 촉진하는 방침 등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⁷⁾ 정책이 변화해온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공간관리법은 자연보호관련법 및 친환경관련법을 포괄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공간환경 관리에 친환경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⁸⁾ 광역차원의 공간환경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유연하고 균형잡힌 국토의 개발을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유럽연합의 설립과 기후협약에 의해 단행된 전면적인 관련법의 개정은 무엇보다 계획과 프로그램의 환경평가 규정을 강화⁹⁾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간환경 개발로의 정책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 독일 공간환경 계획체계

- 독일의 공간환경 계획체계는 건설법전(Baugesetzbuch)에 기초함. 그 밖에 공간관리와 관련한 법으로는 대지의이용에관한법(Baunutzungsverordnung)과 계획도면작성법(Planzeichenverordnung 1990), 공간관리법(Raumordnungsgesetz)이 있음
- 건설법전은 도시계획의 기본 틀을 제시하며, 공간적으로는 독일 국토 전역에 적용됨. 크게 일반적인 공간환경 관리규정을 담은 일반도시계획법과 도시재정비, 도시재개발, 신규개발, 보존 등의 내용이 포함된 특수도시계획법으로 구성되어 있음
- 건설법전에 따라 독일 공간환경 계획체계는 토지이용계획(F-Plan)과 지구상세계획(B-Plan)의 이원체제로 운용됨
 - 토지이용계획은 준비단계의 건설관리계획이라고도 하며, 도시 전역에 걸친 토지의 이용을 규정하나, 구속력은 없음
 - 지구상세계획은 구속적 건설관리계획이라고도 하며, 지구단위별로 상세한 토지와 건축물의 이용을 규정하고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강력한 관리 수단임

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주요외국의 도시계획제도와 변화, p. 33

8) Stueer (2007), BauGB und Fachplanungsgesetze, p. IX

9)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주요외국의 도시계획제도와 변화, p. 33

건설법전의 목차

제1장. 일반도시계획법	제2장. 특별도시계획법
I. 건설관리계획(도시계획)	I. 도시재정비조치
1. 일반규정	1. 일반규정
2. 준비적 건설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F-Plan)	2. 준비와 실행
3. 구축적 건설관리계획 (지구상세계획, B-Plan)	3. 특별재정비규정(청산금)
4. 개인사업자와의 공동사업 (간소한 수립절차)	4. 재정비사업자 및 기타 수탁자
II. 건설관리계획의 담보	5. 재정비의 종결
1. 형질변경금지조치 및 건축신청의 금지	6. 도시건설지원책
2. 토지분할의 허가	II. 도시(신규)개발조치
3. 읍면의 법정선매권	III. 도시재개발
III. 건축 및 기타 이용의 규정 및 보상	IV. 사회보장도시
1. 건축 및 개발 프로젝트의 허용	V. 개인단체
2. 보상	III. 보존조례와 도시계획명령
IV. 토지정리	1. 보존조례
1. 변경	2. 도시계획명령
2. 간소한 변경	IV. 사회계획 및 공공자 조정
V. 토지수용	V. 임대 및 이용권 관계
1. 토지수용의 허용	VI. 농촌구조개선과의 관계에서 도시계획 조치
2. 수용보상	
3. 수용절차	제3장. 기타 규정(이하 생략)
VI. 기반정비	
1. 일반규정	
2. 기반정비부담	
VII. 자연보호 조치	

- 대지의이용에관한법과 계획도면작성법은 건설법전을 보완하는 성격의 법으로 대지의이용에 관한법은 토지이용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의 종류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별로 가능한 건축물의 용적율에 대한 일반규정을 포함함. 또한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층수와 건축물의 면적과 용적, 주차장, 건축방법 등 건축물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다룸. 계획도면작성법은 건설관리계획도면의 작성방법을 규정함

대지의이용에관한법의 목차

제1장. 대지이용의 종류	제4장. (삭제)
제2장. 대지이용의 척도	제5장. 이양과 종료규정
제3장. 건설방법과 건설가능한 대지면적	

- 공간관리법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공간환경의 관리를 주요 목표로 하며, 주단위의 개발계획과 광역지역권에 대한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하며, 기초자치구의 개발계획, 용도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은 이들 계획을 준용해야 함

□ 법정 도시계획의 내용 및 운용방법

- 법정 공간관리계획으로는 토지이용계획인 F-Plan과 지구상세계획인 B-Plan 있음
- 토지이용계획(F-Plan, Flaechnutzungsplan)
 - 토지이용계획은 읍면이나 시와 같은 기초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며, 예측할 수 있는 수요를 기초로 자치구 내 토지의 이용 및 도시시설을 규정하는 계획임

- 토지이용계획은 지구상세계획을 수립할 때 준용해야 할 지침으로써, 준비적 건설관리계획이라고도 함. 또한 토지이용계획은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않으나, 지구상세계획을 구속하므로 간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음
- 건설가능한 토지이용의 종류는 크게 주거, 혼합, 산업, 특별지구로 나뉘며, 이는 다시 세분해서 소주거지역(Ws), 전용주거지역(WR), 일반주거지역(WA), 특별주거지역(WB), 마을지역(MD), 혼합지역(MI), 중심지역(MK), 산업지역(GE), 공업지역(GI), 특별지역(SO)으로 나눔
-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되는 토지이용의 종류 주거, 혼합용도, 산업 등의 도시적 토지이용 뿐 아니라 녹지공간과 수공간 등의 토지이용을 포함하고 있음¹⁰⁾
- 토지이용계획은 지방정부에서 수립하며 정부상임위원회의 허가를 원칙으로 함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되는 토지이용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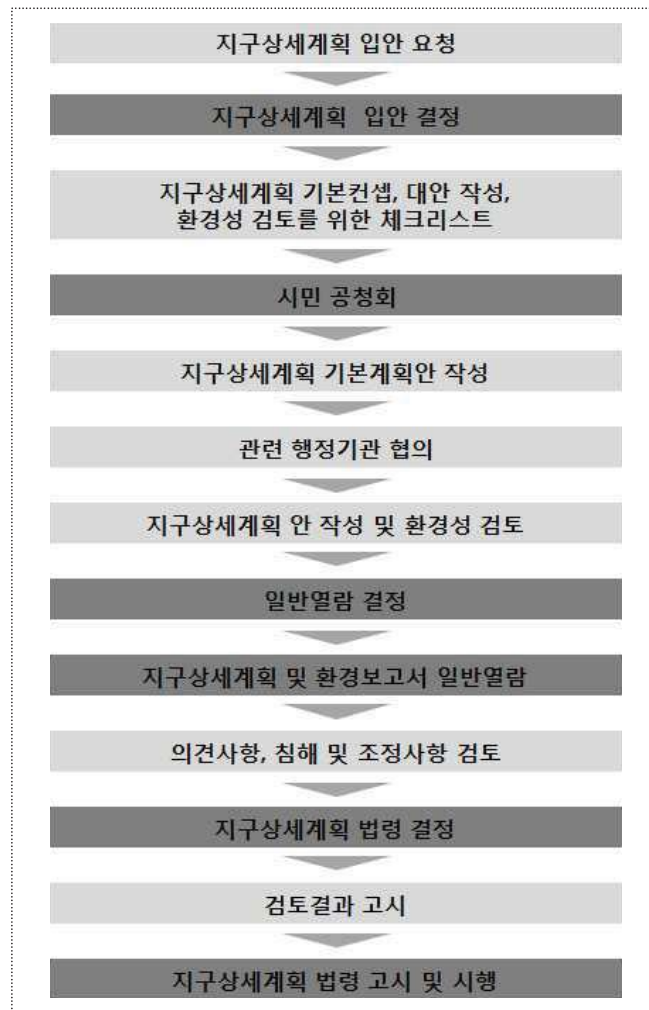
도시적 토지이용	주거, 혼합용도, 산업으로 크게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국방·산업·공업·대학 등 특별지구를 설정하고 있음
녹지공간	일반녹지에는 농지, 삼림 등 비도시적 용도가 포함되어 있고 공원녹지와 나란히 시민공원, 묘지, 캠프장 등과 같은 여가시설을 표시함
수공간	수면, 범람지역, 수면보호지역, 경관보전지구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나 경관계획의 관점이 채택되고 있음
기타	도로·철도, 공원녹지, 공항 등의 도시시설이나 교육·문화·복지 등의 공공·공익시설, 재개발지구 등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음

○ 지구상세계획(B-Plan, Bebauungsplan)¹¹⁾

- 지구상세계획은 도시의 구성부분인 가구 혹은 몇 가구 정도의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상세한 종합계획으로, 주민의 참여를 통해 결정된 후, 조례로 발효하여 강력한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음
- 지구상세계획은 지구시설(구획가로, 소공원, 기타 공공적 시설)과 건축물의 조성방식(용도, 크기, 형식, 배치 등)을 일체화하여 도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제함
- 지구상세계획의 규모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500~1/2500의 도면과 도서로 구성됨
- 지구상세계획은 지구내 공간환경의 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지내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규모, 지구내 교통용지, 건설가능한 대지 등을 규정함. 이러한 내용을 모두 갖춘 계획을 완전지구상세계획(Qualifizierter B-Plan)이라 하며, 내용의 일부만을 다룬 것은 간이지구상세계획(einfacher B-Plan)이라 함
- 지구상세계획 법정도서는 대지의이용에관한법과 계획도면작성법을 준용하여 작성함

10) 서울시경개발연구원 (2002), 주요외국의 도시계획제도와 변화, p. 109

11) 서울시경개발연구원 (2002), 주요외국의 도시계획제도와 변화, p. 115-119



지구상세계획 수립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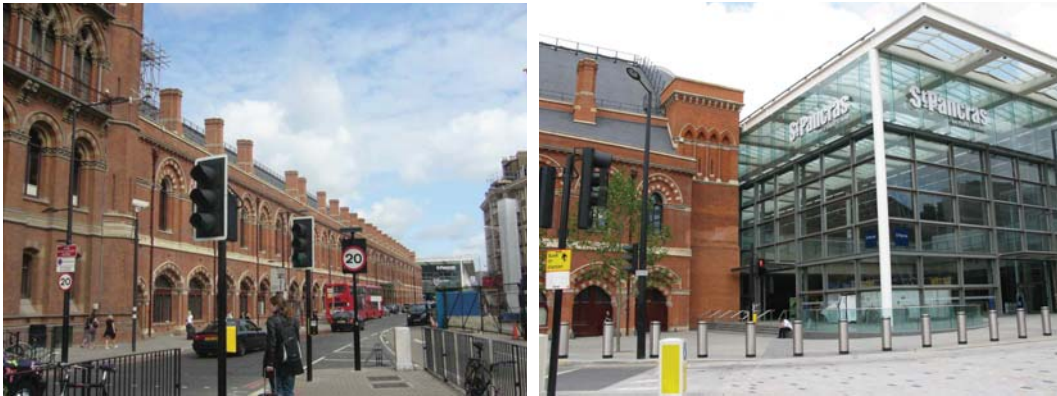
- 지구상세계획의 수립절차는 우선 지방의회가 토지이용계획의 개발예정구역 중 개발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결정한 다음, 계획 입안을 발의한 후, 자치단체의 도시계획과에서 지구상세계획 안을 작성하고 주민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어 의견을 조정,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법정계획안을 의결함. 이 계획은 감사관청의 인가를 받음으로서 지방조례로 발효됨

IV. 주요 사례 답사지

1. Kings cross Regeneration Project

이 프로젝트는 Channel Tunnel Rail Link(CTRL)건설과 기존의 역사를 확장한 것으로, 2007년 St Pancras에 초고속 열차인 유로스타와 연결되는 국제적인 터미널이 들어섬. CTRL 건설 이후 2009년까지 Kings Cross 역 확장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또한 Kings Cross역 주변은 영국에서 가장 큰 복합용도의 개발예정지 중 하나로 주변 재개발을 통해 도심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이는 2012년 올림픽 개최 시 많은 사람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St. Pancras 구건물과 신축건물



개조하여 상업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St. Pancras 구건물 내부



구건물과 신건물의 연계부분과 신축된 유로스타 연계 터미널



2. Peckham 도서관

페컴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과 공간구성으로 공공건축물의 조성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의 명소로 자리잡은 사례임

런던 남쪽에 위치한 서덕 보로의 페컴지역 한복판에 세워진 페컴도서관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열린 광장에 L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모양의 건물로 쓰레기가 쌓인 창고, 지저분한 거리 등 빈곤층이 거주하는 주변 풍경과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초현대식 건물로 계획됨.

120억원을 투자하여 1층엔 주민 민원상담실, 3~5층의 컴퓨터자료실과 일반 열람실, 어린이 열람실, 유아놀이방 등 최신식 네트워크 시설을 갖추고 있음. 현재 한 달에 3만 6000여명이 이용하는 지역의 명소가 되었음

페컴도서관의 설계자인 윌 알소프는 도심 재개발은 지역주민이 즐겨 찾는 공공건물을 짓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간구성을 계획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역의 명소로서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음



3. Greenwich Millenium Village

도크랜드의 그리니치 페닌슐라 지역에 위치한 밀레니엄 빌리지는 지속가능한 개발방식과 최신 기술 및 정보 통신을 도입하여 21세기 미래형 주거지의 모델을 시도하고 있는 시범적인 정주지 조성사업임

1997년 후반 밀레니엄 빌리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설계경기가 실시되었으며 1998년 Ralph Erskine의 안이 당선됨

밀레니엄 빌리지는 전체적으로 약 1400여개의 새로운 주거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고밀도 주거형식으로 계획되었음. 1999년 최종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고 1단계(전체 4단계로 구성)의 건설을 시작하였으며 지금까지 개발이 지속되고 있음

그리니치 밀레니엄 빌리지의 핵심 테마는 '친환경'으로, 단지 바로 옆 템즈강변 저습지에 호수를 조성했고, 정부가 조성한 생태공원으로 이어짐. 주차장은 지하로 계획하고 나무 소재 벽과 덩굴로 가려 훨씬 쾌적한 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주차장 위 데크에는 정원을 꾸며 주민들이 마음껏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함. 또한 자연채광과 고단열재, 태양열 주택, 중수도 등을 도입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설계'에 모든 것을 맞췄음.

밀레니엄 빌리지는 사회통합을 고려하여 실업자나 장애인, 서민을 위해 임대료를 50%가량 할인한 임대주택을 20%가량 계획하고 따로 구분되지 않도록 설계하여 임대주택으로 인한 커뮤니티의 단절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음

밀레니엄빌리지 지하철역과 대중교통(택시, 버스) 터미널



역 앞 Peninsula Square



복합문화상업공간 The O2



지하철역에서 그리니치 밀레니엄빌리지 가는 길의 Peninsula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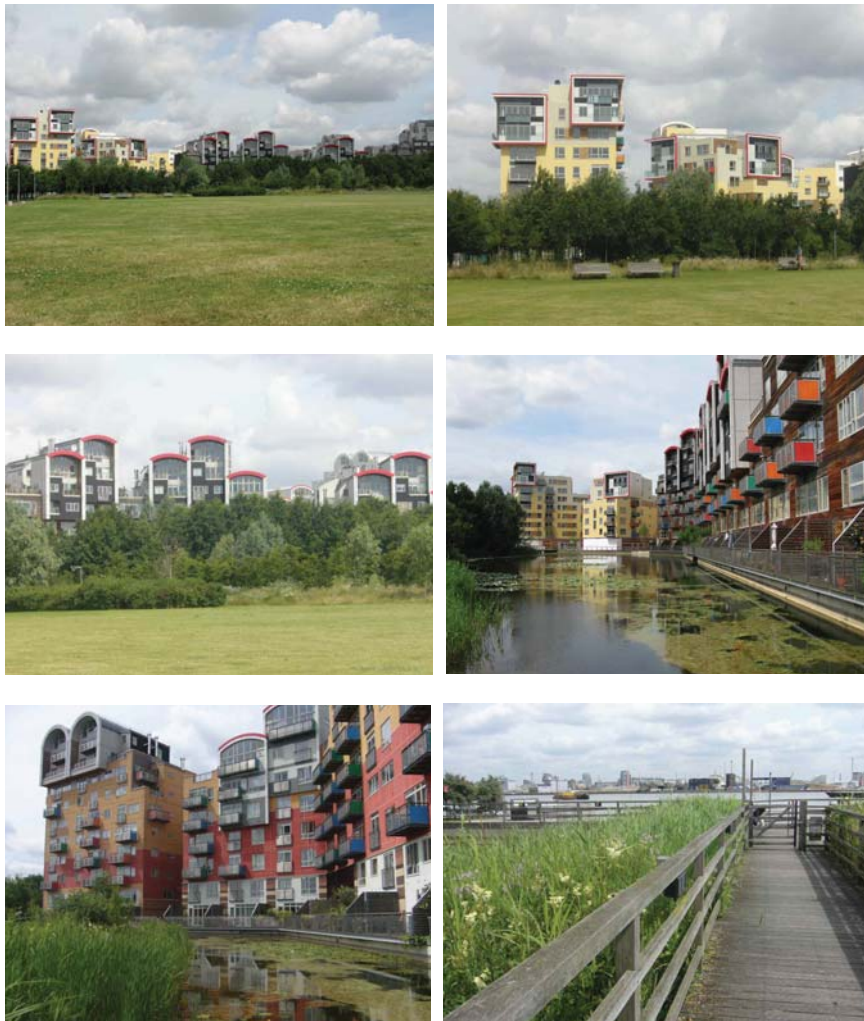
밀레니엄빌리지 Health Center & 초등학교



그리니치 밀레니엄 빌리지 전경



그리니치 밀레니엄 빌리지 : 생태공원 일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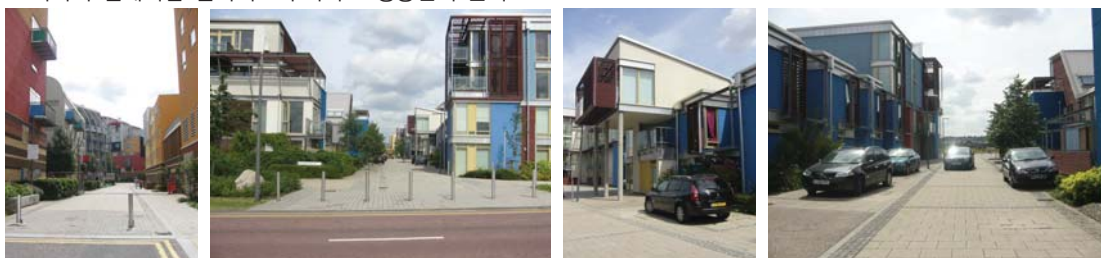


그리니치 밀레니엄 빌리지 : 주차와 보행동선의 분리

주차장위 테크정원



그리니치 밀레니엄 빌리지 : 주차와 보행동선의 분리



4. Swiss Cottage

London Borough of Camden에 위치한 낙후된 문화시설들을 복합적인 용도로 재생하여 새로운 지역으로 재탄생시킨 Swiss Cottage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으로 기존의 저밀 빌딩과 재건축 대상으로 지정된 4층의 빌라들을 재건축하여 커뮤니티를 위한 최상의 시설들로 탈바꿈시킨 런던의 성공적인 사례임

1998년 Camden시 위원회는 1960년대 도서관과 레저 센터를 재개발하여 극장과 수영장 등의 새로운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1999년에 새로운 레저센터와 함께 공공임대 주택 비율이 25%가 되는 주거단지 개발을 결정, 이를 위해 감독관을 선정함. 또한 공원과 레저 센터 설계를 위해 현상공모전을 준비하고 공모전을 통해 각각의 사업에 대한 제안들이 선정되었으며 이후 주민들에게 공개하였음

Terry Farrell 팀은 레저센터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레저센터의 개발을 위해 개발자 Dawnay Day와 함께 Barratts가 팀을 구성하여 Farrell은 건축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ustafson Porter는 공원 설계를 담당하였으며, 레저센터 인테리어는 S&P사가 담당함. 아파트의 외관 디자인은 Farrells에 의해 제안되었으나 S&P가 참여하여 설계함

재정적인 문제는 높은 가격의 고급 아파트와 펜트하우스를 건설 및 분양함으로써 충당하였고, 수영장, 공놀이 코트, 체육시설을 겸비한 최상급의 레저 센터, 새롭게 오픈한 사계절용 축구 피치, 커뮤니티 센터, 의료 시설, 그리고 현대적 도서관 건물을 신축 및 재정비하였음

이 사업의 계획 허가는 2000년에 승인되었고, 2001년에 사업이 착공 되었으며, 2007년에 완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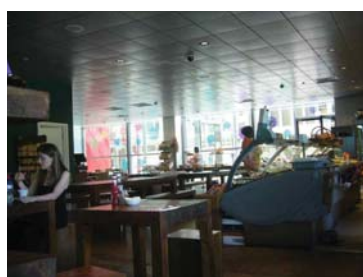
Swiss Cottage 전경



새롭게 재건축된 고급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도서관과 도서관 1층의 카페 및 수영장)



5. St Katharine Docks

런던 시내에 위치한 St.Katharine Docks는 19세기에 상업용으로 템즈 강변에 만들어진 Dock로, 1827년 중세부터 오랫동안 대표적인 슬럼가였던 런던 타워 동쪽 지역을 재개발하면서 새 Dock를 건설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병원 이름을 따서 St.Katharine이라 부르게 됨. 초기부터 너무 작게 만들어져서 큰 상선들이 출입하기 어려워 상업적 효용성 문제로 논란거리가 돼 오다 2차 대전 중 폭격으로 Dock 주변 선적 창고들이 파손되어 1960년대 폐쇄되었음. 70년대 초 런던 시가 Dock을 인수해 마리나로 개조하고 주변 창고 구역을 고급 레스토랑, 아파트, 호텔 등으로 재개발한 뒤 지금은 작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런던 시내의 레저공간으로 재개발하여 도시의 활력을 주고 있음



6. More London Project

More London은 런던의 타워 브리지 남서쪽의 템즈강의 사우스뱅크에 새롭게 개발된 지역으로 2003년 7월에 청이 이곳으로 이전하였고, 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2개의 새로운 오피스 빌딩과 'The Scoop'라고 불리는 선크으로 된 계단식 관람석, 상점, 레스토랑과 카페 그리고 조각과 다채로운 빛에 의한 분수대가 있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 조성됨. 부지의 절반 이상은 두 개의 넓은 광장을 포함한 퍼블릭 스페이스를 조성할 예정이며, 시청과 인접한 선크 관람석인 The Scoop는 이미 뮤직 페스티벌과 같은 여러 공공 행사를 개최하는 공공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음.

건물은 Foster and Partners 건축사무실에서 디자인하였으며 현재 계속 공사중에 있음. The Scoop, 물의 요소와 식재 영역의 공공영역은 Townshend Landscape Architects가 디자인함.

More London Project는 런던의 명소인 타워브리지와 함께 시청이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어 템즈강변의 새로운 명소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More London Project 재개발지구 전경



시청과 광장



시청에 인접해있는 The Scoop



업무빌딩과 문화시설



분수와 휴식공간



오픈 스페이스와 식재



7. Birmingham's Jewellery Quarter Conservation Area

버밍엄의 Jewellery Quarter는 19세기와 20세기에 보석가공업과 소규모 금속 제품 생산지로 독특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역사적 자산임. 건물 대부분이 여전히 본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여러 해에 걸친 산업적인 쇠퇴로 사용되지 않고 비워져 있거나 파손된 상태에 있음.

이에 City Council은 복합 이용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매력적이고 특징적인 건축물을 재사용할 것을 장려함으로써 지구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음. City Council은 주얼리 지구의 활력을 위한 원칙으로 디자인의 질이 역사적으로 높았었고 지역의 특별한 특성이 강한 이 지구의 과거 최상의 상태를 활용하는 ‘보존을 통한 재생’을 강조하고 있음.

이에 따라 City Council과 파트너는 주얼리 지구의 독특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 가이드를 만들었으며, 이러한 관리계획은 2002년 1월에 Supplementary Planning Guidance로 채택되어 주얼리 지구의 특성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지역재생에 기여하고 있음

Jewellery Quarter 전경



가이드라인에 의해 주변건물과 조화롭게 신축된 건축물



8. "Stuttgart 21" Project 역전개발지역

Stuttgart 21세기 프로젝트는 Stuttgart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가장 대표적인 brown field 재개발 프로젝트로 Stuttgart를 유럽의 교통요지로 계획함과 동시에 기존의 중앙역사와 선로를 지하화함으로써 지상에 형성되는 공간에 늘어나는 지역인구에 대비하여 주거와 업무가 혼합된 복합지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임

이 프로젝트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심지개발을 지표로, compact, urban, green을 목표로 주거, 업무, 상업, 문화 그리고 여가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며, 총 134 ha에 달하는 대지에 건축면적 50ha, 연면적 140ha, 그리고 공원녹지 20ha를 조성하여 2030년까지 11,000명의 거주자와 24,000 개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임

계획대상지는 7개의 지구로 나누어 계획과 사업이 진행되는데,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기본 틀은 1997년 법적 효력을 얻은 라멘플랜에 기초하며 A1지구와 E지구를 위한 지구상세계획은 각 2003년과 2001년 수립되었으며 현재 A1지구의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음

재정적인 지원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인 독일 정부, Baden-Wuerttemberg주, 슈투트가르트 시, 슈투트가르트 지역의회, 그리고 독일 철도 공사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총 투자액의 60%는 철도공사에서 부담하며 나머지는 공공기관에서 부담한다. 2001년 슈투트가르트시는 A2 / A3 / B / C1 / C2 / D 지구를 독일 철도공사로 부터 매입하였으며 중앙역의 공사가 끝나면 이 지역의 계획이 진행될 예정임

중앙역에 마련된 "Stuttgart 21 project" 전시관 전시물



일부 공사가 완료된 업무지구



9. 에슬링엔 시

에쓰링엔시의 역전거리는 에쓰링엔시의 중앙역과 도심을 잇는 가로로 레스토랑과 상점, 업무 시설, 수공업, 주거 등이 공존하는 변화한 상점가로임. 19세기에 조성된 역전거리는 전후 재건축된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과의 부조화로 미관이 조악하고 자동차 교통의 증가로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였는데, 역전거리 상인들이 원동력이 되어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가로개선 사업을 추진한 public-private-partnership 사업임. 계획 아이디어에서 가로의 패이브먼트, 벤치 등과 같은 가로시설물, 조명과 계절에 따라 바뀌는 깃발에 이르기까지 계획가와 시, 시민들이 상호 밀접한 대화를 통해 함께 결정하였음.

이 가로의 개선사업은 1997년 처음 계획에서 2000년 완공되기까지 약 4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시 담당부서와 이니셔티브가 대표한 시민, 그리고 설계자가 서로 밀접하게 협의를 통해 계획을 진행시켰기 때문에 처음의 설계개념이 비교적 일관성 있게 실현될 수 있었음

역전거리 가로 개선사업



에슬링엔 가로 전경



V. 구독 자료 목록

1. 단행본

- 1) "Public Space—the management dimension", matthew Carmona, Claudio de Magalhaes and LeoHammond, Routledge, 2008
- 2) "from design policy to design quality", matthew Carmona, JohnPunter, DavidChapman, Thomas Telford, 2002
- 3) "Urban Projects Manual", Forbes Davidson and Geoffrey Payne, Liverpool University Press, 2000
- 4) "Safer Places—The Planning System and Crime Prevention", Office of Deputy Prime Minister, thomas telford, 2004. 3
- 5) "Design and access statements explained", Rob Cowan, Urban Design Group and Urban Design Skills, thomas telford, 2008
- 6) "Preparing Design Codes—A Practice Manual", CABI, RIBA, 2006
- 7) "Living Places : Caring for Quality, The Bartlett School of Planning", UCL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London, RIBA, 2004. 1
- 8) "Manual for Streets",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Department for Transport, thomas telford, 2007
- 9) "A FESTIVAL ON THE RIVER", Charlotte Mullins, Penguin Books, 2007
- 10) "Cityscape Atlas copenhagen 2003", Planning&Architecture, City of Copenhagen, Building and Construction Committee, City of Copenhagen, 2003

2. 단행본 (비매품)

- 1) "Living Roofs and Walls", Design for London
- 2) "Jewellery Quarter Conservation Area", Birmingham City Council Planning Department
- 3) "places for living", Birmingham City Council Planning Department, 2001. 3
- 4) "places for all", Birmingham City Council Planning Department, 2001. 11
- 5) "high places—a planning policy framework for tall buildings", Birmingham City Council Planning Department, 2003. 3
- 6) "Levels of spatial planning in Stuttgart", STUTTGART

- 7) "Stadtentwicklungskonzept STUTTGART STRATEGIE 2006", STUTTGART
- 8) "StadtKernZiele Innenstadt-konzept Entwurf 2006", STUTTGART
- 9) "[Umrisse] Zeitschrift für Baukultur", STUTTGART
- 10) "RahmenplanHalbhohenlagen", STUTTGART
- 11) "Zukunftsfähige Stadterneuerung in Baden-Württemberg 2004/2005", Baden-Württemberg
- 12) "Baufibel Für die Esslinger Altstadt", STADT ESSLINGEN AM NECKAR
- 13) "Sanierung historische Innenstadt Esslingen am Neckar", STADT ESSLINGEN AM NECKAR

3. CD

- 1) "A guide to design review", CABA, 2006